

공주 공산성에 대하여 (公州 公山城에 對하여)

安 承 周

(公州師範大學 博物館長)

目 次

| | |
|------------------|-------------|
| I. 序 言 | 2) 臨流閣址 |
| II. 公山城의 現況 | 3) 東 門 址 |
| 1) 沿 革 | 4) 將 臺 址 |
| 2) 公山城의 構造와 現存遺蹟 | 5) 暗 門 址 |
| III. 公山城內 調査遺蹟 | IV. 公山城內 池塘 |
| 1) 挽阿樓址 | V. 結 言 |

I. 서 언(序 言)

사적(史蹟) 제 12호 공주(公州), 공산성(公山城)은 백제(百濟)가 도읍을 한성(漢城)에서 웅진(熊津)으로 옮긴 이후의 주요 거성(據城)으로서, 부소산성(扶蘇山城)과 함께 남천(南遷) 이후의 대표적인 백제 성곽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공산성(公山城)의 경우는 공주(公州)가 백제, 멸망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방의 주요 행정중심지로 기능함에 따라 조선조(朝鮮朝)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사적(史蹟)이 성내(城內)에 다수 남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성(公山城)이 가지는 풍부한 학술적 혹은 관광개발 자원으로서의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오랜동안 이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전혀 미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공산성(公山城)에 대한 학술적(學術的) 관심이 집중(集中)케 된 것은 70년대(年代) 후반(後半) 정부(政府)가 백제문화권개발사업(百濟文化圈開發事業)을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필자(筆者)는 공산성(公山城)의 학술조사작업(學術調査作業)에 참여(參與)한 관계로 이에 대(對)한 특별한 관심을 더하게 되었으며,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지표조사(地表調査) 및 발굴조사(發掘調査)에 대(對)한 몇편의 글을 발표한 바 있다.¹⁾ 특히 82년에는 공산성(公山城)에 대(對)한 종합적(綜合的)인 검토를 진행한 바 있어,²⁾ 고대성곽지(古代城廓址) 및 잔존유적(殘存遺蹟)

1) 筆者의 公山城에 關한 拙稿는 다음과 같다.

<公山城에 對하여>《考古美術》 138, 139 合號 <韓國美術史學會> 1978.

<公山城內의 遺蹟>《百濟文化》 11. (公州師大百濟文化研究所) 1978.

《百濟文化圈의 文化遺蹟》 (公州師大百濟文化研究所) 1979.

2) 《公山城》(公州師大百濟文化研究所) 1982.

에 대한 대체적인 이해를 언급(言及)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以後)에 계속 연구(研究)·조사(調査)의 결과(結果)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경과에³⁾ 따라 보다 새롭고 종합적인 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작업(作業)의 기초로서 그동안 발표된 내용을 개략적이거나 정리하면서 새로이 조사된 유적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공산성(公山城)에 대(對)한 이해의 일단을 마련코저 함이다. 때문에 부분적(部分的)으로는 이미 발표(發表)된 글을 요약(要約)하면서 새로이 조사(調査)된 유적(遺蹟)의 내용(內容)을⁴⁾ 간략하게 소개코저 한다.

II. 공산성(公山城)의 현황(現況)

1) 연 혁(沿革)

공산성(公山城)이 백제시대(百濟時代)에 시축(始築)되었음은 성내(城內)에 산재(散在)된 백제시대(百濟時代)의 사적지(史蹟址), 성내(城內)에서 출토(出土)되는 백제(百濟)의 와전(瓦塼)과 토기편(土器片), 그리고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記錄)에 의해서 확인(確認)할 수 있으나 성(城)의 정확한 축조시기(築造時期)는 불분명(不分明)한 상태(狀態)에 있다. 그러나 공산성(公山城)에 대(對)한 문헌(文獻)의 초기기록(初期記錄)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성왕(聖王) 4년(526) 5월의 「수증웅진성(修葺熊津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성왕(聖王) 이전(以前)에 축조(築造)되었다는 것은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백제(百濟)가 웅진(熊津)으로 천도(遷都)하여 존속(存續)한 시기(時期)(AD 475~539중),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보이는 성곽(城柵) 축조(築造)에 대(對)한 기사(記事)를 살펴보면,⁵⁾ 성곽(城廓)의 축성(築城)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동성왕대(東城王代)의 일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신도웅진(新都熊津)을 거점으로 하는 방위강(防衛綱)의 형성(形成)과 구축(構築)에 그 목적(目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문주(文周)·삼근왕시기(三斤王時期)의 천도(遷都) 시기(時期)는 정정(政情)의 혼란(混亂)으로 방위시설(防衛施設)의 정비(整備)가 불가능(不可能)하였을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후 왕권(王權)의 안정(安定)과 함께 성곽축조(城廓築造)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의 성곽(城廓) 위치(位置)를 분명(分明)하게 가리기는 어려우나, 가림성(加林城)이나 탄현(炭峴)의 경우로 보아 동성왕대(東城王代)의 축성사업(築城事業)은 웅진(熊津)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동성왕대(東城王代)의 축성사업(築城事業)이 본격화 되기 이전(以前)에 이미 웅진성(熊津城)은 축성(築城)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는 웅진성(熊津城)의 축조(築造)가 주변의 경우보다 우선적인 사업이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에 웅진성(熊津城)의 시축(始築)은 일단 동성왕(東城王) 8년(486) 이전(以前)의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축(始築)의 시기(時期)를 문주왕(文周王)이 웅진(熊津)으로 천도(遷都)한 AD 475

3) 82년에 調査된 池塘(報告書近刊豫定), 83年の 暗門, 84年の 水口門址 및 영은사앞지역의 建物址가 추가되고 있다.

4) 池塘山 暗門에 대한 內容소개를 첨가하고자 한다.

5) 三國史記에 의한 熊津時代 築城 및 設柵內容은 다음과 같다.

- 文周王 · 大豆山城의 修葺,
- 東城王 · 牛頭城, 沙峴城, 耳山城, 沙井城, 加林城의 築城, 炭峴에 設柵
- 武寧王, 長嶺城, 雙峴城의 築造, 高木城 南側의 設柵
- 聖王, 熊津城의 修葺

年以前으로 비정(比定)할 가능성(可能性)도 결코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당시에 고구려(高句麗)의 남침(南侵)으로 인한 황급한 상황에서 신도(新都)를 택정(擇定)함에 있어 방어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地域)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며, 아울러 당시의 웅진(熊津)은 백제 중부지역(百濟 中部地域)의 주요 거점이었기에 웅진성(熊津城)과 같은 군사시설(軍事施設)이 갖추어져 있었을 것임은 쉽게 상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천도후(遷都後)의 많은 축성기사(築城記事)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웅진성(熊津城)의 축조(築造)에 대(對)한 기사(記事)는 없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예컨대 웅진성(熊津城)은 주변의 어떠한 성곽(城廓)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웅진성(熊津城)의 축조(築造)는 주변의 어느 성곽(城廓)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아울러 기록(記錄)에 남아야 함이 자연(自然)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웅진성(熊津城)의 시축(始築)은 백제(百濟)가 남천(南遷)(AD 475)하기 이전(以前)에 이미 축성(築城)되어 군사적(軍事的)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이며, 천도이후(遷都以後)에도 이를 계속 수증(修葺)하면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⁶⁾

백제(百濟)의 성왕(聖王)이 도읍(都邑)을 사비(泗沘)로 옮긴(AD 538) 이후(以後)에도 웅진(熊津)은 여전히 백제(百濟)의 부도(副都)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예컨대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이 사비성 침공시(泗沘城 侵攻時) 의자왕(義慈王)은 웅진(熊津)으로 탈출하여 이를 기점으로 재기(再起)를 시도하였는데,⁷⁾ 이는 당시 이 지역(地域)에 주둔하고 있던 웅진방령군(熊津方領軍)의 군사력(軍事力)과 공산성(公山城)의 방비력(防備力)에 의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백제멸망이후 공주(公州)는 호서지방(湖西地方)의 군사(軍事)·행정(行政)의 중심지(中心地)였고, 이 때문에 공산성(公山城) 역시 군사적(軍事的)으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공산성(公山城)은 헌덕왕(憲德王)(AD 822) 대(代)에 일어난 김헌창(金憲昌)의 난(亂)으로 인하여 일대 격전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김헌창(金憲昌)은 신라(新羅)의 진골세력(眞骨勢力)으로 그의 부(父) 김주원(金周元)이 왕(王)이 되지 못하고 자신도 중앙대신(中央大臣)의 직(職)에서 지방장관(地方長官)으로 출보(出補)된 것에 불만을 지닌채 웅진성(熊津城)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김헌창(金憲昌)은 웅진도독(熊川都督)으로 부임한 이듬해에 즉 헌덕왕(憲德王) 14년에 거사하여 국호(國號)를 장안(長安), 연호(年號)를 경운(慶雲)이라하여 신라왕실(新羅王室)의 정통성(正統性)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김헌창(金憲昌)의 세력은 충청지방(忠淸地方) 뿐만 아니라 전라(全羅), 경기(京畿), 그리고 경상도(慶尙道) 일대까지 미칠 정도에 이르렀지만 경주귀족연합세력(慶州貴族聯合勢力)의 반격에 의해 역전되어 다시 웅진(熊津)으로 돌아왔고, 공산성(公山城)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김헌창(金憲昌)의 반군(叛軍)이 공산성(公山城)에 입성(入城)하여 10여일간(餘日間)이나 성(城)을 고수(固守)하는 바, 이는 공산성(公山城)의 방어상의 이점, 성곽(城廓)의 견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⁸⁾

공산성(公山城)에 대(對)한 기록은 김헌창(金憲昌)의 난(亂)을 마지막으로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별다른 사실이 보이지 않으며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르러 성곽(城廓)의 개축(改築), 수증(修葺)에 대(對)한 기사(記事)가 나타난다. 오늘날 공산성(公山城)은 성(城)의 70% 정도가 석성(石城)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석성(石城)에로의 개축(改築)은 조선시대(朝鮮時代)

6) 熊津에로의 遷都는 종래 地理的 環境이 강조되어 왔으나, 이에 못지 않게 당시 熊津의 現實의 조건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7) 三國史記卷 5, 新羅本紀 武烈王 7年 7月 13日. 義慈王率左右 夜遁走 保熊津城. 18日 義慈率太子及熊津方領軍等 自熊津城來降에 관한 기사가 있다.

8) 三國史記卷 10, 新羅本紀第 10, 憲德王 14 年條.

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축(改築)에 대(對)한 구체적 기록(記錄)은 쌍수산정사적비문중(雙樹山亭事蹟碑文中)에 적고 있다. 즉 만력(萬曆)의 임인년(壬寅年)에 유근(柳根)이 충청도순찰사(忠淸道巡察使)가 되어 처음으로 이 성(城)을 축조(築造)하였다는 기사(記事)가 보이며,⁹⁾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도 선조년간(年間)의 개축기사(改築記事)를 싣고 있다.¹⁰⁾ 한편 왕조실록(王朝實錄)에서도 이 사실이 뒷받침 되는데, 선조(宣祖) 36년 12월의 비변사계(備邊司啓)¹¹⁾에서 공주산성(公州山城)이 이미 수리가 완비되었다는 사실을 적고 있으며 광해군(光海君) 즉위년(卽位年)(1608)의 비변사계(備邊司啓)에서¹²⁾도 유근(柳根)에 의한 개축(改築)의 기사가 있다. 이로써 미루어 당시의 성역(城役)은 유근(柳根)이 부담한 선조(宣祖) 35년부터 시작되어 그 이듬해에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시켜 개축(改築)이 완료됐던 것으로 보인다.

공산성(公山城)의 수증(修葺)은 이후(以後)에도 여러번 있었지만 상기(上記)한 선조대(宣祖代)의 개축사업(改築事業)이 조선시대(朝鮮時代) 공산성(公山城)에 대(對)한 대규모의 성역(城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쌍수정비문(雙樹亭碑文)에서 유근(柳根)의 개축작업(改築作業)을 “시축차성(始築此城)”¹³⁾이라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며, 인조원년(仁祖元年)의 수증(修葺)사실¹³⁾에도 불구하고 이전(以前)의 기록(記錄)이 유근(柳根)에 대해 집중(集中)되고 있는 사실에 쉽게 짐작된다.

공산성(公山城)이 백제시대(百濟時代)의 시축(始築)당시에 산성(山城)이었던 것은 쉽게 짐작되지만, 이것이 석성(石城)으로 어느시기에 개축(改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상술(上述)한 선조대(宣祖代)의 개축(改築)이 산성(山城)을 석성(石城)으로 개축(改築)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공산성(公山城)이 이미 석성(石城)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⁴⁾ 즉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는 공산성(公山城)의 명칭(名稱)을 공산석성(公山石城)으로 여지승람(輿地勝覽)은 공산성(公山城)에 대(對)한 설명중 석축(石築)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가 세종(世宗) 14년에 편찬(編纂)된 팔도지리지(八道地理誌)를 전제(轉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산성(公山城)은 세종(世宗) 14년(1432) 이전(以前)부터 이미 석성(石城)이었음은 쉽게 추측할 수 있으나, 그 이상(以上)의 추론(推論)은 불가능(不可能)하다고 본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르러 공산성(公山城)이 요충으로서의 기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은 이괄(李括)의 난(亂)을 피하여 인조(仁祖)가 이곳으로 천도(遷都)하면서이다. 이괄(李括)은 인조반정(仁祖反政)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으나 논공(論功)에 불만, 인조(仁祖) 2년(1623)에 평안도에서 거병하였고, 이에 인조(仁祖)는 중신(重臣)을 이끌고 수원(水原) 천안(天安)을 거쳐 공주(公州)에 도착, 공산성(公山城)을 거점으로 10여일간 체류한다. 원래 인조(仁祖)의 남행시(南行時), 대상지로 경상도와 전라도가 논의되었으나, 공산성(公山城)에 대(對)한 장유(張維)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공주(公州)에 천도(遷都)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⁵⁾

이상(以上)의 역사(歷史) 진행(進行)에 따라 공산성(公山城)의 명칭(名稱)도 여러번 바뀌었

9) 《公州軍志》 1957의 雙樹山城事蹟碑文中에

萬曆壬寅年間 宗伯西峒柳公根 出爲都巡察使 始築此城 觀設領備.

10) 大東地志卷 5, 公州 城池條에 “雙樹山城……本朝宣祖癸卯修築……”라 적고 있다.

11) 《宣祖實錄》 卷 169, 36年 12月, 公州山城, 已爲修完 監吉入接其內

12) 《光海君日記》 卷 8. 卽位年 10月 壬戌……公州山城 前日柳根爲監司時 繕築城子備儲糧械 已爲就完……

13) 仁祖元年에 對한 修葺記事는 雙樹亭事蹟碑文中에 癸亥 巡察使申鑑 重新其制 蓄積繕修라 적고 있다.

14) 《世宗實錄地理志》에는 「公山石城」으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石築周四千八百五十尺……라 적고 있다.

15) 《仁祖實錄》 卷 4, 2年 2月 辛卯 및 壬辰, 戊戌과 卷 47의 24年 10月 己卯條 참조.

다. 「웅진성(熊津城)」은 백제시대(百濟時代)의 공산성(公山城)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 명호(名號)는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그런데 공산성(公山城) 혹은 공주산성(公州山城)이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거의 일반화(一般化)되어 있었는데, 이 명칭(名稱)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에 대(對)해서는 불명(不明)하다. 그러나 공주(公州)란 지명(地名)의 출현(出現)이 고려 태조(高麗太祖) 23년(940)의 일이므로 웅진(熊津)(웅천(熊川))이 공주(公州)로 바뀌어진 이후(以後)에 웅진성(熊津城) 역시 공산성(公山城), 공주산성(公州山城), 공산산성(公山山城)으로 불려지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공산성(公山城)이 「쌍수산성(雙樹山城)」으로 불리고도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인조(朝鮮時代 仁祖) 2년, 즉 인조(仁祖)의 공산성(公山城) 주역이후(駐驛以後)에 쓰여지게 된 것인바 인조(仁祖)가 공주(公州)에서 환도할 때 쌍수(雙樹)의 명(名)을 특사(特賜)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이후(以後)의 사서(史書) 특히 여지도서(輿地圖書), 대동지지등(大東地志等)의 지지류(地誌類)에서 그 이름이 즐겨 사용되고 있다.

2) 공산성(公山城)의 구조(構造)와 현존유적(現存遺蹟)(圖面 1)

공산성(公山城)은 현재 남쪽으로 공주시가(公州市街)와 연결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금강(錦江)의 남안(南岸)에 접(接)하여 장축을 북서(北西)쪽에서 남동(南東)쪽으로 비스듬히 위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北)쪽의 금강(錦江)과 함께 해발 110m의 공산(公山) 산세(山勢)를 충분히 이용하였기 때문에 천연적인 요충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 규모도 상당히 커서, 백제(百濟)의 대표적 포곡형 산성(包谷形山城)으로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공산성(公山城)은 백제시대(百濟時代) 시축(始築)된 이래(以來) 여러차례의 개수(改修)를 거듭하였기 때문에 백제(百濟) 본래의 축성내용(築城內容)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현재는 대부분 석성(石城)이지만 원래는 토성(土城)이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공산성(公山城)이 토성(土城)에서 석성(石城)으로 후대(後代)에 개축(改築)되었다 하더라도 지형상(地形上)의 문제 때문에 기존의 토성(土城)을 전혀 무시한 개축(改築)은 불가능(不可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圖面 1) 공산성내(公山城內)의 유적(遺蹟)

공산성(公山城)(圖版 1)에 대(對)해서는 조선시대(朝鮮時代)의 각종지리지(各種地理誌)에 당시의 현황에 대해서 단편적이거나 기록하고 있는데, 성(城)의 둘레나 높이 등을 적고 있다. 예컨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는 공산성(公山城)의 둘레가 597보(步),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4,850장(丈), 여지도서(輿地圖書)는 1,823장(丈) 대동지지(大東地志)는 2,404보(步)를 적고 있어 구체적인 수치상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들 지지(地誌)의 편찬시기가 다르고, 또한 도량형상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수치로 환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인다. 필자(筆者)가 1978년에 계측(計測)한 결과에 의하면 공산성(公山城)의 총연장 길이는 2,660m이고, 그중 보통 외성(外城)이라고 불리는 동문지(東門址) 밖의 토성(土城) 467m를 제외하면 2,193m로, 여기에 영은사앞 지(池)의 낙조(樂造)를 위해 쌓은

듯한 석축(石築) 43m를 제외하면 2,150m가 된다. 한편 2,660m를 토성(土城)과 석성(石城)으로 나누어보면 토성(土城)이 735m, 석성(石城)이 1,925m로 전체의 70% 이상(以上)이 석성(石城)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 105 —



圖版 1. 公山城(北側·錦江沿)

圖版 1. 공산성(公山城)(북측(北側)·금강연(錦江沿))

성폭(城幅)과 성고(城高)는 위치(位置)에 따라 차이가 극히 크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고(高)가 10척(尺)으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고(高) 3장(丈)으로 기록하고 있어 상호 비슷한 면을 보이지만, 현존의 상황은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비교적 측정(測定)이 용이한 진남루(鎭南樓)부터 서측(西側) 300m 지점의 경우 성폭(城幅) 6m, 350m지점의 경우 4.2m, 그리고 성곽(城郭)의 상면폭(上邊幅)은 1.5m정도로 나타난다. 한편 성고(城高)는 7m내외(內外)가 되는 지점도 있으나 이는 지형상(地形上)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대체로 진남루(鎭南樓)주변의 성고(城高)가 높으나 지형자체(地形自體)가 천연적(天然的)으로 험한 서북(西北), 동북(東北)일대는 2m정도의 높이에 적석 자체(積石自體)도 극히 조잡한 상태로 되어 있다.

성곽(城廓)의 선(線)은 남측의 경우 능선상에서 약간 낮추어 경사면을 두르고 있다. 동시에 성곽(城廓)의 내측(內側)은 삭토(削土)하여 이를 석축(石築)의 내탁(內托)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깊은 호(壕)가 형성(形成)되어 있고, 반면에 급한 경사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점은 축성(築城) 당시 지형(地形)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진남루(鎭南樓) 서쪽으로 250m지점의 호의 규모는 상면(上面)너비 16m, 깊이가 2m에 이른다. 석성(石城)의 축성방식(築城方式)은 성북(城北)의 공북루(拱北樓)부근에서 약간의 협

k16) 이에 對해 成周鐸教授(百濟 熊津城과 泗泚城研究(其一) 百濟研究 11, 1980. p. 172)는 熊津城의 길이가 土築山城의 길이를 390m로 보고 城의 총길이가 2,450m로 計測하기로 한다.

축법(夾築法)이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토(土)·잡석(雜石)에 의한 내탁(內托)이며, 성석(城石)은 진남루(鎭南樓)부근이 남측에 사용된 것이 가장 고르고 공북루(拱北樓)서쪽 및 영은사앞 수구문(水口門)의 성석(城石)이 가장 크다. 성석(城石) 1단의 높이는 30cm내외(內外)로서 대체로 전구간이 공통되고 있다. 그러나 성석(城石)의 조(祖)·정(精)의 차이는 지역에 따라 크게 나타나는데 공북루(拱北樓) 서측 150m지점이후(以後)의 부분은 축석(築石)에 있어서 협축(夾築)의 공법(工法)이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석(城石)이 대형화되고 있다. 동시에 성석(城石)의 모양은 판석(板石)과 같은 할석(割石)으로 되어 있어, 진남루(鎭南樓)주변에서 사용한 각(角)을 죽이고 면(面)을 둥글게 호형(弧形)으로 처리한 성석(城石)과는 대조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전체의 30% 미만을 차지하는 토성(土城)은(圖版 2) 주로 광복루(光復樓)와 동문지(東門址)를 중심으로 한 성(城)의 동(東)쪽 구간에 이중(二重)의 겹성(城)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제시대(百濟時代) 본래의 토축상태(土築狀態)를 전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문지 외곽의 겹성구조는 공산성(公山城) 구조상(構造上)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거니와 내측(內側) 성(城)은 공산(公山)의 정상부(頂上部)에 해당하는 광복루(光復樓) 옆의 고지대(高地帶)를 경유하며 능선을 따라 진남루(鎭南樓)쪽으로 연결되고 이 선상에 위치한 동문지(東門址)에서 다시 산중복(山中腹)의 경사면을 도는 외측성(外側城)과 분기(分岐)된다. 이 외측성(外側城)은 전장(全長) 467m로서 모두 토축(土築)으로 되어 있는데 후대(後代)의 방치와 전지화(田地化) 등으로 인한 지형교란에 따라 극히 퇴락한 상태이다. 토성(土城)의 구축은 적심석(積心石)을 다수 혼합한 토(土)·석혼축(石混築)의 형태이며, 이러한 현상은 동문지(東門址) 북측(北側) 내측성(內側城)의 경우 특히 심하며, 토사(土沙)보다 잡석(雜石)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존 토성(土城)의 높이는 1m내외(內外)이며, 동문지(東門址)부근에 서는 성곽(城廓)의 안쪽에 조성(造成)된 2m깊이의 호도 보이고 있다.



圖版 2. 光復樓周邊의 土城

圖版 2. 광복루주변(光復樓周邊)의 토성(土城)

성문(城門)은 성내외(城內外)의 출입(出入) 및 적의 방어와 공격에 필수적인 시설인데 공산성(公山城)의 경우 원래 東·西·南·北의 4지점에 성문(城門)이 시설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남문(南門)인 진남루(鎭南樓)(圖版 3)와 북문(北門)인 공북루(拱北樓)만이 현존(現存)하고 東·西門은 그 유지(遺址)만 잔존한다. 이중 진남루(鎭南樓)는 공산성(公山城)의 주문(主門)에 해당하여 현재 공산성(公山城)의 출입통로(出入通路)로 이용되고 있으며, 1971年度에 해체복원된 누각(樓閣)은 무사축(武砂築)에 의한 높은 석축기단(石築基壇)은 좌우(左右)로 대칭시켜 조성한 후 두 석축기단(石築基壇)위에 걸쳐 누정(樓亭)을 가설, 효과를 내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초익식(初翼式) 팔작집이다. 공북루(拱北樓)는 선조(宣祖) 36(1603)에 옛 망북루(望北樓)의 유지(遺址)에 신축(新築)한 조선시대(朝鮮時代) 문루건축(門樓建築)으로서 정면 5칸, 측면 3칸을 이루고 있으며 고주(高柱)를 사용한 2층(二層)의 다락집 형태이다.



圖版 3. 南門(鎭南址)

圖版 3. 남문(南門)(진남루(鎭南址))

서문지(西門址)와 동문지(東門址)는 유지(遺址)만 남아 있는데 후술(後述)하는 동문지(東門址)는 발굴조사(發掘調査)에 의해 규모가 확인되었으나 서문지(西門址)는 발굴조사(發掘調査)를 진행하지 않은 채 도로(道路)로써 사용되고 있다.

이외(以外)에 성곽(城廓)에 시설된 문지중(門址中) 수구문지(水口門址)가 영은사 앞에 있는데 현존의 수구문지(水口門址)는 너비 2m로 근래(近來)에 이루어진 것이며 84年度 조사결과(調査結果)에 따르면 이 수구문지의 부근에 본래의 수구문지(水口門址)(圖版 4)가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현존 수구문(水口門)의 西쪽으로 3~4m지점에서 성(城)의 상단부(上端部)에서 아래로 4m지점에 길이 12m에 가로 80cm 높이 40cm를 석축(石築)한 수구문(水口門)이 조사되었다. 성(城)의 시설물로는 이외(以外)에 치성(雉城)과 고대(高臺) 5지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여장(女牆)이 영은사 앞의 지당(池唐)주변에 시설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圖版 4. 水口門址

圖版 4. 수구문지(水口門址)

성내(城內)의 현존유적(現存遺蹟)은 대체로 조선시대(朝鮮時代)에 건축(建築)된 것이 대부분이나 공산성(公山城) 북록(北麓)의 함곡지대(陷谷地帶)에 위치한 영은사는 공주읍내(公州邑內) 유일의 현존고사(現存古寺)인데, 주변의 지세(地勢)에 따라 사찰(寺刹)을 건립한 관계로 북동향(北東向)의 건물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원통전(圓通殿), 관일루(觀日樓)를 주 건물로 지니고 있다. 사찰(寺刹)의 창건(創建)에 대(對)해서는 불명(不明)하고, 다만 경내에 유존(遺存)하는 탑(塔)의 옥개석(屋蓋石) 1매(枚)와 초석(礎石) 등의 존재(存在)로 보아 창사(創寺)는 최소한도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이다.

광복루(光復樓)는 산성(山城)의 동측 백제토성지(百濟土城址)부근의 고지대(高地帶)에 위치한 누각(樓閣)으로 일제초기(日帝初期)에 성내(城內) 중군영(中軍營)의 문루(門樓)였던 것을 이진(移建)하여 웅심각(熊心閣)으로 호칭(號稱)하다가 1945년 보수(補修), 광복(光復)이란 명칭이 주어졌다. 광복루(光復樓)는 정면(正面) 3間, 측면(側面) 2間의 건물로 8각(角)의 고준한 화강암 주초(柱礎)위에 고주(高柱)를 올렸다.

쌍수정(雙樹亭)은 진남루(鎭南樓)부근의 서측 고지에 위치한 정각(亭閣)으로 인조(仁祖)가 파천시(播遷時)에 머물렀던 장소이다. 원래 2그루의 전나무가 있었는데 인조(仁祖)가 환도할 즈음, 이 나무에 정3품(正三品)의 대부작(大夫爵)을 내렸으나 현존하지 않고, 영조(英祖) 10년(1734)에 쌍수정(雙樹亭)을 건립(建立)하였다 하나 현존(現存)의 건물은 1947년 중수(重修)된 것이다.

이외(以外)의 유적(遺蹟)으로는 월파당지(月波堂址)가 공북루동측대상(拱北樓東側臺上)에, 명국삼장비각(明國三將碑閣)은 광복루(光復樓) 서측(西側)에, 그리고 쌍수산성주역사적비등(雙樹山城駐驛事蹟碑等)이 있으며, 현존(現存)하지는 않으나 중군영(中軍營) 및 각종의 창고(倉庫)가 기록(記錄)에 전하여지며 장대(將臺) 및 마장(馬場)의 존재도 눈에 띄고 있다.

III. 공산성내 조사유적(公山城內 調查遺蹟)

1) 만아루지(挽阿樓址)(圖版 5)

만아루지(挽阿樓址)는 공산성(公山城) 동문지(東門址) 밖 20m지점에 위치한 100여평의 대지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누지(樓址)의 뒷편에는 토성(土城)이 드리워져 있고, 주위에는 장대석(長臺石) 등의 석재(石材)가 지표(地表)에 약간 노출된 채 유존(遺存)되고 있다. 이지점이 누지(樓址)라는 것은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기록(記錄)과¹⁷⁾ 공산지(公山誌)의 도표(圖表)를 참고하고 1978년의 지표조사(地表調查) 결과(結果)에 의해 존재(存在)가 확인되었으며¹⁸⁾ 이어 1980年度の 발굴조사결과(發掘調查結果) 그 면모가 확인되었다.¹⁹⁾



圖版 5. 挽阿樓址

圖版 5. 만아루지(挽阿樓址)

누지(樓址)는 토성(土城)의 높이를 낮추어 정지(整地)한 후 서측(西側)에는 잘 다듬어진 장방형(長方形) 석재(石材)를 써서 축대(築臺)를 쌓고 그 위에 루(樓)를 건립(建立)한 것으로 보이는데, 누지(樓址)의 크기는 길이 18m에 너비는 가장 넓은 곳이 6.6m로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서측(西側)의 축대(築臺)는 요자형(凹字形)을 이루고 있으나 중앙이 가늘고 양끝은 넓게 쌓았다. 그러나 축대내(築臺內)의 루지(樓址)는 잡석(雜石)으로 채워져 있을 뿐 초석(礎

17) 《輿地圖書》 忠淸道 公州牧의 樓亭條에……在城東廓臺臺……라 기록되어 있다.

18) 安承周, 《百濟文化圈의 文化遺蹟》(公州師大百濟文化研究所) 1979.

19) 安承周 《公山城》 公州公山城內建物址發掘調查報告書(公州師大百濟文化研究所) pp.51~60, 1982.

石)은 없으며, 잡석(雜石)의 아래에는 토성(土城)의 판축층(版築層)이 있다. 서측(西側)의 축대(築臺)는 단단한 토성(土城)을 파내고 잘다듬어진 화강암석으로 5단(段)을 쌓았는데 높이가 1.7m나 되며, 누지(樓址)의 중앙(中央) 남측축대하단(南側築臺下段)의 1열(列)은 2, 3단(段)보다 큰 돌로 기초석(基礎石)을 쌓으면서 2단을 약간 안으로 드러서 쌓고, 이러한 방식(方式)은 2, 3, 4, 5단에 까지 적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만아루(挽阿樓)의 건립(建立)은 곁성의 성격을 지닌 토성(土城)이 그 기능을 상실한 조선 후기(朝鮮後期)에 이루어 졌음을 기록(記錄)에 따라²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누지(樓址)는 토성(土城)의 높이를 낮추어 정지(整地)한 후 이 토성(土城)의 판축층(版築層)을 루(樓)의 기반(基盤)으로 이용하였음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누지(樓址)에서 출토(出土)된 유물(遺物)은 백제(百濟) 연화문와당(蓮花紋瓦當) 3점(點), 3족토기편(三足土器片) 4점(點), 도연편(陶硯片) 1점(點) 제토기편(濟土器片) 다수(多數)를 출토(出土)하고, 통일신라(統一新羅), 고려(高麗)의 와당편(瓦當片)이 출토(出土)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루(樓)의 초창(初創)은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기록된 조선후기(朝鮮後期)보다는 훨씬 이전(以前)인 백제시대(百濟時代)에 이루어 졌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초창(初創)의 백제(百濟) 건물(建物)의 규모 및 그 성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토성(土城)을 유지하면서 건물을 축조(築造)하였을 것과 곁성으로 이루어진 성(城)의 내부(內部)에 건물을 축조(築造)하였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출토(出土)된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암막새기와와 고려(高麗)의 와당(瓦當)은 초창(初創)의 건물(建物)이 후대(後代)에도 계속 개축(改築) 보수(補修)되면서 유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조선후기(朝鮮後期)에 이르러 토성(土城)을 깎아 대지(臺地)를 조성(造成)하고 여기에 루(樓)를 축조(築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임류각지(臨流閣址)(圖版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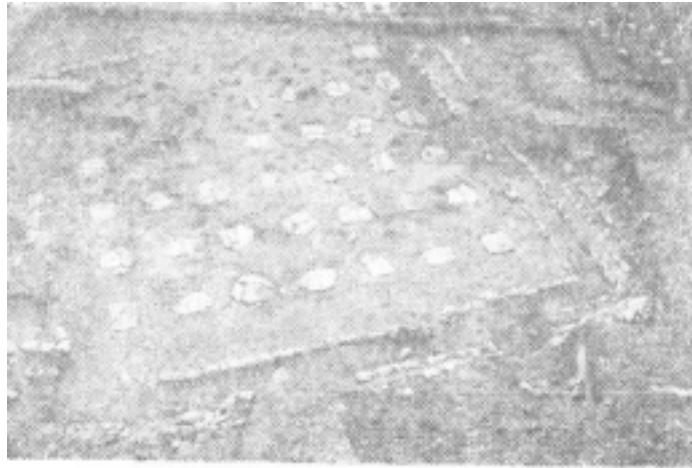
임류각지(臨流閣址)는 공산성(公山城)의 산정(山頂)에 위치한 광복루(光復樓)에서 서쪽으로 약 150m 떨어진 山의 중복(中腹), 서향(西向)된 사면(斜面)에 대지(臺地)를 조성(造成)하고 건립(建立)된 건물(建物)의 유지(遺址)이다. 본래 1978년의 지표조사시(地表調査時)에 백제토기편(百濟土器片), 고려자기편(高麗磁器片), 조선자기편 등(朝鮮磁器片 等) 수점(數點)을 수습한 바 있으며, 또한 문헌기록(文獻記錄)으로 구공산지(舊公山誌)의 지도(地圖)에는 군창(軍倉)으로 생각될 수 있는 사창(司倉)의 명이,²¹⁾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망일사(望日寺)가 위치한 것으로 표시(表示)되어 있다.²²⁾ 또한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백제본기(百濟本紀) 동성왕조(東城王條)에는 임류각(臨流閣)의 건립(建立)에 대한 기사를 실고 있어²³⁾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자료(資料)라고 추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1980년도(年度)의 발굴조사결과(發掘調査結果)로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건물지(建物址)는 3차(三次)의 층위(層位)로서 구성되고 있어서 주목(注目)되었다.

20) 註 20, 上掲書

21) 정확한 位置라고는 볼 수 없으나 《公山誌》 185(p)에는 可倉의 명이 記載되어 있다.

22) 《輿地圖書》의 公州牧地圖에는 望日寺로 記錄되어 있다.

23) 《三國史記》 卷 28 百濟本紀 東城王 22年……春起臨流閣於宮東 高五丈……라 적고 있다.



圖版 6. 臨流閣址

圖版 6. 임류각지(臨流閣址)

초창(初創)의 건물(建物)은 루각(樓閣)의 건립(建立)을 위해서 먼저 山의 경사면(傾斜面)을 파내어 정지(整地)한 후 여기에 한변의 길이가 10여(餘)m에 달하는 건물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면적은 약 109㎡에 달하고 있는데, 남측면이 5칸 동측면이 6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석(礎石)의 배치는 남측열(南側列)이 6매(枚), 동측열(東側列)이 7매로서 이루어져 있으며 총 42매(枚)의 초석중(礎石中)에 현존(現存)하는 것은 31매(枚)이고 나머지 11매(枚)는 결실(缺失)되었다. 또한 초석간(礎石間)의 거리는 남측면(南側面)이 각기 2.1m, 동측면(東側面)이 1.8m로 이루어져 있으나 총길이는 양쪽이 동일하여 정방형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초석(礎石)의 기본형태는 방형(方形)이나 2~3매(枚)의 돌을 합쳐 초석(礎石)을 만들고 있음이 주목되는데, 이들 초석(礎石)이 놓여 있는 레벨은 상호 동일하지만 초석면(礎石面)은 요철(凹凸)을 두고 있는 소위 「그랭이」 초석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지반(地盤)이 약한 서측초석(西側礎石)의 주위에는 보조목(補助木)을 세웠던 굴건식(掘建式) 원형주공(圓形柱孔)이 많이 뚫려 있다. 이러한 굴건식주공(掘建式柱孔)이나 그랭이 초석(礎石)의 형태(形態)로 미루어 짐작하면 초창건물(初創建物)은 고층(高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창(初創)의 초석(礎石)주위에서 수습(收拾)되는 백제연화문와당(百濟蓮花紋瓦當), 토기편(土器片), 3족토기편(三足土器片) 등(等)으로 보아 초창건물(初創建物)의 건축시기(建築時期)는 백제시대(百濟時代)로 짐작된다. 또한 문자와 중(文字瓦 中)에서 「류(流)」 자명(字名)의 와편(瓦片)은 이 건물지의 명이 유자(流字)와의 관련을 암시하고 있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보이는 임류각(臨流閣)을 이에 쉽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임류각(臨流閣)은 고가 5장(五丈)이라 하여 고층건물(高層建物)이란 점과 아울러 조사(調查)된 유적(遺蹟)의 위치나 규모 등으로 미루어 짐작될 수 있다. 초창건물(初創建物)의 부수시설로는 건물지(建物址) 주위에 배수로(排水路)를 두었는데 동측면(東側面)의 배수로(排水路)는 초석(礎石)에서 2m정도 떨어져 있고, 북측면(北側面) 배수로(排水路)는 1.2m의 거리를 두고 시설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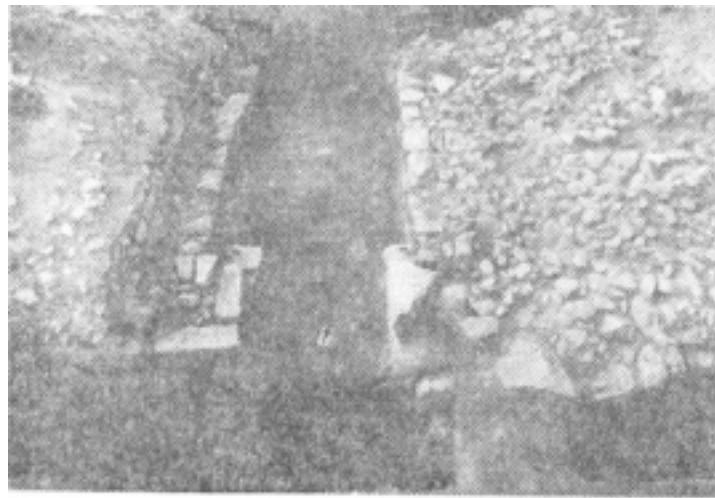
2차(二次)의 건물지(建物址)는 초창(初創)의 건물지(建物址)위에 흙을 돋우고 그 위에 다시 건물(建物)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2차건물지 토층(二次建物址 土層)에서 고려자기(高麗磁器), 고려와당(高麗瓦當)등의 고려시대유물(高麗時代遺物)이 집중적(集中的)으로 출토(出土)되고 있어 2차건물(二次建物)은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차건물(二次建物)의 초석(礎石)들은 3차건물(三次建物)이 세워지기전에 이미 심하게 교란되어 성격(性格)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2차 건물지(二次 建物址)의 규모는 초창(初創)의 건물지(建物址) 규모보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었음이 토층단면(土層斷面)에 의해 파악되고 있다.

3차건물지(三次建物址)는 2차기단토(二次基壇土) 위에 방(房)고래와 아궁이를 조성(造成)한 사람들에 의해서 건립(建立)된 것으로 보인다. 2차기단토(二次基壇土)위에 형성(形成)되어 있는 아궁이 시설은 유지(遺址)의 최상층(最上層)에 있는데 조선시대(朝鮮時代)의 변형연화문와당(變形蓮花紋瓦當)을 비롯한 백자(白磁) 등(等)을 출토(出土)하고 있어, 하한시기(下限時期)를 19세기중엽(世紀中葉)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보인다.

3) 동문지(東門址)(圖版 7)

진남루(鎭南樓)에서 東으로 성곽(城廓)을 따라 約 240m 올라가면 토성(土城)을 절단(絶斷)한 지점에 이르는데 이 지점은 최근에도 城의 내외(内外) 출입로(出入路)로 사용하는 지점이다. 구공산지(舊公山誌)와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지도(地圖)에 동문(東門)의 그림이 나타나 있으나 위치에 대(對)한 정확한 표시는 없고, 다만 지형상(地形上) 이 지점이 동문(東門)의 위치로 짐작되어 왔던 바, 1980年の 조사결과(調査結果)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²⁴⁾²⁵⁾



圖版 7. 東門址

圖版 7. 동문지(東門址)

동문지(東門址)의 현존(現存)하는 규모는 문지(門址)의 통로(通路)길이가 6.45m, 폭(幅)이 2.46m이다. 문지(門址)의 전면 양측(前面 兩側)에 문지석(門持石) 2매(枚)가 놓여있고, 자연석(自然石)으로 쌓은 통로(通路)의 벽(壁)도 원상(原狀)을 유지하고 있다. 2매(枚)의 문지석 상면(門持石 上面)에는 문설주공(孔)이 장방형(長方形)으로 15cm×5cm×5cm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측(內側)으로 직경 11cm, 깊이 2cm의 문지공(門止孔)이 남아 있다. 이러한 형태는 두 개의 문지석(門持石)이 동일하며, 또한 서측 문지석 문지공(西側 門持石 門止孔)

24) 註 19 同掲書. pp. 61~78, 참조.

25) 註 19 同掲書 pp. 79~85. 참조

의 바닥에는 문초꽃이의 마멸방지를 위해서 설치된 무쇠받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문지석(門持石)의 전면(前面)에는 장대석(長臺石)이 수평(水平)으로 놓여있고 그 위에 큰 면석(面石) 1매(枚)를 포개어 놓고 있는 바, 이는 외부(外部)에서 성문(城門)을 열지 못하게 한 시설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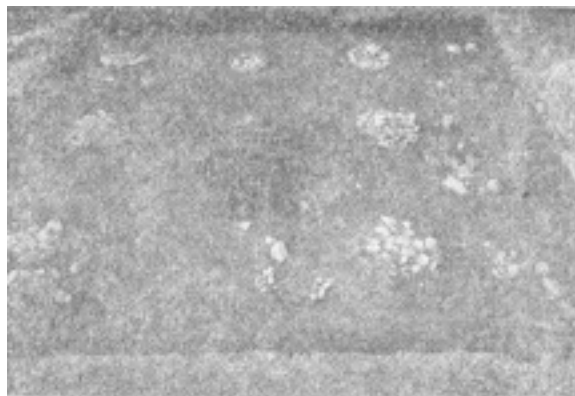
서벽(西壁)은 자연석(自然石)으로 면(面)을 맞추어 3~4단(段)을 쌓고 면회(面灰)하였는데 하단(下段)은 큰돌로 1열(列)을 놓아서 기단석(基壇石)의 형태를 이루고, 상단(上段)은 갑석(甲石)의 성격(性格)을 띠고 있다. 아울러 상단(上段)을 0.7m정도 밖으로 段을 두고 다시 벽석(壁石)을 쌓고 있는데, 현재는 2~3段만 남아 있으며, 축석(築石)의 형태가 매우 조잡함을 보이고 있다. 동벽(東壁)도 자연석(自然石)으로 면(面)을 맞추어 서벽(西壁)과 같은 방법(方法)으로 쌓았으나 현재 2段만 남아 있으며, 역시 면회(面灰)를 하고 있다.

문지(門址)바닥의 전면(前面) 1m 깊이에서 기단석(基壇石)을 1열(列)로 놓고 있는 바, 이 밑에는 생토층(生土層)이어서 기단석열(基壇石列)이 동문(東門)의 창건(創建)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기단석(基壇石)위에 형성(形成)되어 있는 토층(土層)과 토층내(土層內)의 와편(瓦片)을 포함하는 층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동문(東門)의 개축시(改築時)마다 문지(門址)를 돈우고 성문(城門)을 세웠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출토(出土)된 유물(遺物)은 백제토기편(百濟土器片) 2점(點), 조선시대 자기편(朝鮮時代 磁器片) 2점(點), 철제편(鐵製片), 와편(瓦片)에 불과하나 동문(東門)의 창건대(創建代)는 기단석(基壇石)과 토층(土層), 그리고 토성(土城)에 문지(門址)가 설치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토성(土城)의 축조시(築造時)에 문(門)이 설치되었다가 점차 개(改)·보수(補修)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4) 장대지(將臺址)(圖版 8)

장대지(將臺址)는 광복루(光復樓)에서 서북(西北)으로 120m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발굴조사전(發掘調査前)까지만 하여도 이곳을 임류각지(臨流閣址)로 추정(推定)하여 왔었다. 즉 1961년에 이곳에서 백제식(百濟式) 부전(敷塼)과 「류(流)」자명(字名)의 문자와(文字瓦)가 출토(出土)되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도(年度)의 조사결과(調查結果)에 따라 임류각지(臨流閣址)의 존재(存在)가 확인됨에 이 지역(地域)은 건물지(建物址)의 규모 및 위치(位置)로 미루어 장대지(將臺址)로 추정(推定)하게 되었다.



圖版 8. 將臺址

圖版 8. 장대지(將臺址)

이 장대지(將臺址)의 실체는 정면(正面)(南北) 2간(間), 측면(側面)(東西) 2간의 건물(建物)로 이루어져 있다. 비록 초석(礎石)은 모두 파괴되었으나 초석(礎石)의 설치를 위해 사용한 적심석군(積心石群)이 9군데에서 발견되었으며, 적심석군간(積心石群間)의 거리는 3m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建物)의 한 변 길이는 6m인 정방형(正方形)이며 총면적은 36㎡로 추정된다. 이 적심석군(積心石群)은 표토하(表土下) 50~60cm의 깊이에 묻혀 있었는데 동일토층(土層)에서 출토(出土)된 변형연화문와당(變形蓮花紋瓦當)으로 미루어 연대(年代)는 조선후기(朝鮮後期)에 비정(比定)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적심석군(積心石群)밑으로 30cm의 깊이까지 부식토층이 형성(形成)되어 있고, 이 부식토층에 많은 와편(瓦片)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존(現存)하는 장대지 이전(將臺址 以前)의 건물존재(建物存在)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대지 이전(將臺址 以前)의 초창건물(初創建物)은 지표하(地表下) 90cm지점에 건립(建立)되어 있었지만, 조성(造成)된 대지(臺地)의 규모가 장대지(將臺址)와 큰 차이를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물(建物)의 규모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암문지(暗門址)(圖版 9)

암문(暗門)은 여지도서 등(輿地圖書 等)의 기록(記錄)에 의해 존재(存在)에 대해서는 짐작할 수 있었으나, 암문(暗門)의 성격상 위치(性格上 位置)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이루어지지 못한채 있었다. 다만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기록(記錄)에서 추측하면, 지(池)와 병행(併行)하여 기록(記錄)된 점으로 미루어 지당(地塘)부근에 시설되어 있으리라는 추측만이 있어왔다.²⁶⁾ 그러던 중 82년의 지당조사(池塘調査)에 이어 83년에 암문(暗門)을 발견 조사(發見 調査)하게 되었는데 이는 지당남측(池塘南側)에 축조(築造)되어 있는 성곽내(城廓內)에 시설되어 있었던 것이다. 발견(發見)된 동기는 지역내(地域內)의 지형상(地形上)의 고려와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지도(地圖), 그리고 성곽(城廓)의 기능을 감안하여 현존(現存)하는 암문지(暗門址)의 위치를 선정(選定)하여 발굴조사(發掘調査)케 된 것이다.

암문(暗門)은 지당(池塘)의 남측(南側) 즉 영은사 앞의 계곡을 東·西로 가로지르는 성곽내(城廓內)에 설치되어 있는데 성곽(城廓)을 남북(南北)으로 뚫고 설치하였다. 암문(暗門)의 크기는 총길이 10.23m, 높이 1.67m, 상폭 1.30m, 저폭 0.80m인바, 암문(暗門)의 바닥면은 지표하(地表下) 2.30m이다. 구조(構造)는 개석(蓋石)이 덮혀 있는 부분(部分)이 4.5m이며, 개석(蓋石)이 없는 부분은 5.73m인데 개석(蓋石)이 없는 부분은 시설초기(施設初期)부터 덮은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출입통로(出入通路)의 역할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26) 《輿地圖書》 忠淸道 公州牧의 城池條에 雙樹山城……池……右邊翼城與左邊翼城同石築暗門一가 있다.



圖版 9. 暗門址

圖版 9. 암문지(暗門址)

개석(蓋石)은 확인가능(確認可能)한 것이 4매(枚)인데 통로입구(通路入口)를 좌우(左右)로 가로질러 걸쳐 놓았으며, 이중 전면(前面)의 2枚는 원상(原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2枚는 붕괴로 말미암아 약 80~90cm정도 내려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통로와 암문(暗門)의 바닥은 입구(入口)에서 출구(出口)쪽으로 약 5°가량의 경사(傾斜)를 두면서 토(土)·잡석(雜石)의 혼축(混築)이 이루어져 있으며 암문(暗門)의 벽석(壁石)은 자연할석(自然割石)으로 쌓고 있다.

입구(入口)쪽의 시설은 통로출입(通路出入)을 위한 계단과 입구폐쇄용(入口閉鎖用)의 괴석군(塊石群)이 있다. 계단(階段)은 통로입구(通路入口)의 동측(東側)에 10단(段)으로 이루어져 있고 계단석(階段石)으로 사용한 석재(石材)는 모두 잡석(雜石)으로 면(面)만을 약간 손질한 정도에 불과하다. 축조방법(築造方法)은 맨 하단(下段)부터 토층(土層)에 계단석(階段石)을 1열(列)놓고, 다시 그 위에 2단(段)을 놓는 방법으로 시설(施設)하였는데, 규모는 길이 2.1m, 높이 0.25m이며, 전체높이는 1.7m이다. 입구(入口)의 정면(正面)에는 통로(通路)의 서벽(西壁)에 연(沿)하여 「ㄱ」자형(字形)으로 방어벽(防禦壁)을 쌓고 후면(後面)에 괴석군(塊石群) 즉 비상시에 암문 폐쇄용(暗門 閉鎖用)의 석재(石材)들이 놓여 있다. 그러나 출구(出口)쪽은 현재성곽(現在城廓)을 쌓을 때 폐쇄시킨 것으로 짐작될 뿐, 확인이 불가능(不可能)하다. 출구(出口)가 폐쇄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성기석(城基石)위에 수직으로 쌓여있는 현재(現在)의 성석열(城石列)이 모두 엇물려 있고, 또한 성기석하(城基石下)에 쌓은 적심석군(積心石群)의 상태(狀態)가 성석(城石)과 동일시기(同一時期)에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며, 출구(出口)의 확인(確認)은 현존성(現存城)의 해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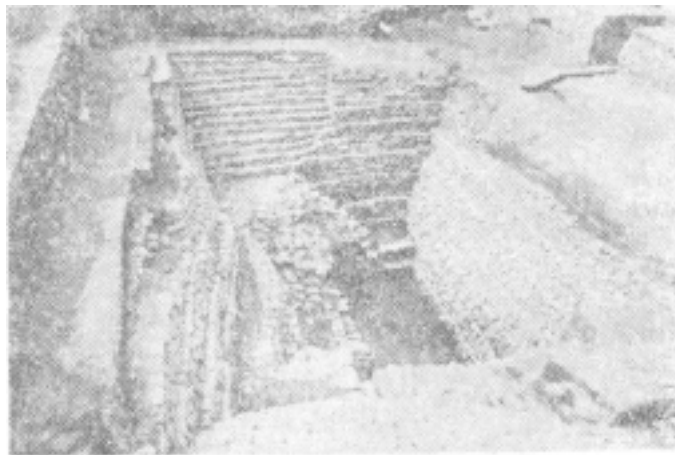
5) 공산성내 지당(公山城內 池塘)(圖版 10)

공산성내(公山城內)의 지(池)에 대(對)해서는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먼저 기록상(記錄上)에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부터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즉 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三國史記 百濟本紀 東城王) 22年(500)에 못을 파고 기금(寄禽)을 키웠다는 기록이 임

류각(臨流閣)의 건축사실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²⁷⁾ 이 지(池)의 위치는 오래전부터 공산성내(公山城內)에 있을 것으로 믿어져 왔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공주조(公州條)에도 성내(城內)에 못이 하나 있다는 기록을 전하고 있어²⁸⁾ 공산성내(公山城內)에 지(池)가 있었음을 전해주고 있다. 그런데 영조조(英祖朝)의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는 못이 2개(個)가 되고 있음이 주목된다.²⁹⁾ 즉 지(池)의 하나는 둘레가 64장(丈), 깊이가 2丈이며, 가물면 물이 마른다고 적고 있으며, 또 둘레가 50丈, 깊이가 7척(尺)의 못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19세기의 공산지(公山誌)에는 이에 관한 기사가 보다 조리있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기록(記錄)과는 약간의 상위(相違)가 보이고 있다. 이에 의하면 성(城)의 동북(東北)쪽 수구문(水口門)밖에 있는 지(池)는 둘레 64丈, 깊이 2丈이며, 성내(城內) 북쪽에 있는 또 하나의 지(池)는 둘레가 50丈, 깊이가 3尺이며, 가물때는 물이 마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수구문지(水口門址) 밖의 지(池)에 대(對)해서는 82年 발굴조사시(發掘調査時)에 일단 유구가 노출(露出)된 것으로 비정(比定)이 가능하게 된다.

수구문지(水口門址) 밖의 지(池)의 위치는 공산성 북록(公山城 北麓)의 영은사앞 계곡에 위치한 지점으로 영은사앞의 1,180㎡의 마당과, 이 마당앞 즉 성곽(城廓)과 금강(錦江)의 사이에 1,400㎡의 공지(空地)가 형성(形成)되어 있는데, 이 지점이 지(池)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지(池)의 크기는 북측호안석(北側護岸石)의 길이가 15.3m, 남측호안석(南側護岸石)의 길이가 21m, 동서측호안석(東西側護岸石)의 길이가 12m이며, 깊이는 약(約) 7.7m인바, 현재(現在)의 지표상(地表上)에서는 깊이가 약(約) 11m에 이르는 것이다. 호안석축(護岸石築)은 모두 단(段)을 두어 쌓았는데, 전체적인 모습은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사용(使用)된 석재(石材)는 모두 채석(採石)된 돌로 매우 정연(整然)하게 쌓았고, 석질(石質)은 절석(絶石)이 잘 되는 반암(斑岩)이 대부분이다.



圖版 10. 池 塘

圖版 10. 지 당(池 塘)

호안석(護岸石)을 쌓는 순서는 북측호안석(北側護岸石)을 먼저 쌓아서 금강(錦江)물이 안

27) 東城王 22年春에 起臨流閣……又穿池養寄禽……라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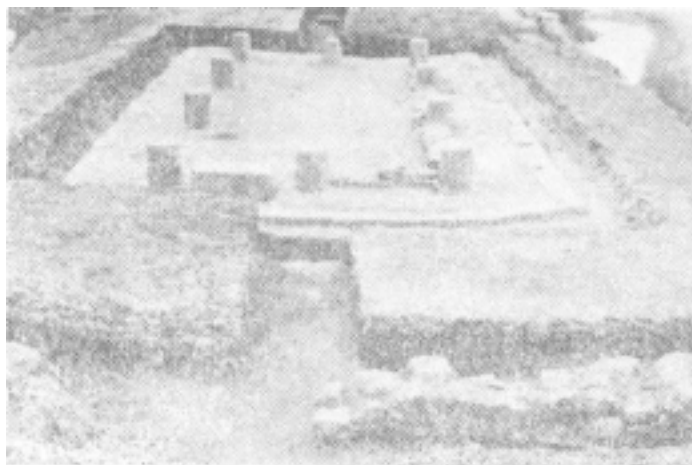
28) 《大東地志》 卷 5, 公州 城池條 참조.

29) 《輿地圖書》 忠淸道 公州牧 城池條

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제방(堤防)과 같은 역할(役割)을 하였으며, 다음에 東·西·南側의 호안석(護岸石)을 쌓았는데 3벽(三壁)은 처음부터 서로 엮물려 쌓았음이 확인된다.

북측(北側)의 호안석벽(護岸石壁)은 8段의 段을 두고 쌓았을 뿐 별다른 시설이 남아있지 않다. 이 북측호안벽(北側護岸壁)과 금강(錦江)과의 거리는 약(約) 13m정도에 이른다. 서벽(西壁)의 호안석(護岸石)은 9段으로 이루어졌고, 남측호안석(南側護岸石)에 접(接)해서 지(池)의 아래에 이르는 계단을 두었는바 14段이며 그 폭은 6.7m에 높이는 4m이다. 아울러 호안석벽(護岸石壁)에 연(沿)하여 층계참(層階站)을 설치하고 있는 바 그 규모는 2.5m×2.2m이며, 이 층계참(層階站)에서 서벽(西壁)에 연(沿)하여 지(池)의 아래로 다시 10계단(階段)을 두고 여기에 1.7m×1.7m의 층계참(層階站)을, 그리고 이 층계참(層階站)에서 북벽(北壁)에 연(沿)하며 2계단(二階段)을 두어 지(池)의 바닥에 이르는 시설이 되어 있다. 이와같은 계단(階段)은 남벽(南壁)에 연(沿)하여 동서벽(東西壁)에서부터 두 개가 설치되고 있는데 남벽중앙하(南壁中央下)에 이르면 하나의 층계참(層階站)에 이르러 양계단이 마주쳐서 다시 지(池)의 바닥에 이르는 시설이 되어 있다. 지(池)의 전체 형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동측호안석(東側護岸石)의 북부(北部)가 붕괴되어 있으며, 남벽(南壁)은 호안남측(護岸南側)의 토압(土壓)에 의해 배가 부르듯이 중앙부(中央部)가 지내(池內)로 밀려 있다. 바닥은 판석(板石)으로 부석(敷石)하고 있는데, 지내(池內)의 계단시설(階段施設)로 말미암아 규모가 東西 9m, 南北 4m로 대폭 축소되어 있다.

지(池)의 외부시설(外部施設)은 배수로(排水路)와 축대석(築臺石)의 설치가 이루어져 있다. 배수로(排水路)는 폭(幅) 0.4m로서 지(池)의 상면(上面)주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편평한돌을 마주놓아 수로(水路)를 구성하고 있으며, “ㄷ” 자형(字形)으로 설치되어 금강(錦江)으로 수구(水口)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배수로(排水路)는 지(池)의 외부시설(外部施設)임에도 불구하고 지내부(池內部)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외부(外部)에서 지내(池內)로 들어가는 유입수(流入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설치 되었다. 지당(池塘) 주변에 쌓은 축대석(築臺石)은 지(池)의 상면(上面)주위의 토사(土沙) 붕괴를 막기 위해 시설한 것으로 東, 西, 南에 축조(築造)되어 있으며, 규모는 지형(地形)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圖版 11. 樓 址

圖版 11. 누 지(樓 址)

지(池)의 북측 호안석(北側 護岸石)과 금강(錦江)과의 사이에는 폭(幅)이 약(約) 13m정도로 여기에 루각(樓閣)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다. 루지(樓址)는 (圖版 11) 정면(正面) 3칸(間), 측면(側面) 2칸으로 구성(構成)되는 바, 방형주좌(方形柱座)에 8각고초(八角高礎)가 정면(正面)에 4매(枚) 동서 측면(東西 側面)에 3枚로 모두 10枚가 원형(原形)대로 놓여 있으며, 이 초석(礎石)의 둘레에는 잘 다듬어진 돌로서 지대석(地臺石)을 돌리고 있다. 정면 초석간(正面 礎石間)의 거리는 2.7m이며, 측면 초석간(側面 礎石間)의 거리는 1.8m이다. 루지(樓址)의 규모는 10.5m×6m로서 계측(計測)되며, 승가대석(昇架臺石)이 동측전간(東側前間)의 중앙(中央)에 놓여있다. 아울러 루지(樓址)의 주위에는 여장시설(女牆施設)이 확인되고 있는 점도 주목(注目)된다.

V. 결 론(結 論)

공산성(公山城)에 대(對)한 일반적(一般的)인 이해와 성(城)의 변천(變遷)에 대(對)한 과정(過程)을 추정(推定)하기 위하여, 성(城)에 대(對)한 개괄적(概括的)인 사실(事實)을 검토(檢討)하여 보았으며, 아울러 최근(最近)까지의 발굴조사(發掘調査)된 유적(遺蹟)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보았다. 이는 공산성내(公山城內)의 문화유적(文化遺蹟) 및 성곽(城廓)의 변화(變化)·변천(變遷)을 문헌(文獻) 및 발굴조사내용(發掘調査內容)을 통(通)한 이해를 얻기 위한 시도로써 진행한 것이다. 본문(本文)의 내용(內容)을 정리(整理)하면서 공산성(公山城)의 이해를 심화(深化)하여 보겠다.

공산성(公山城)의 초기기록(初期記錄)은 백제(百濟)의 성왕대(聖王代)에 수증(修葺)에 대(對)한 기사(記事)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백제(百濟)의 웅진천도(熊津遷都)의 역사적 상황(歷史的 狀況), 동성왕대(東城王代)의 축성기사내용(築城記事內容)으로 미루어 공산성(公山城)의 조영(造營)은 백제(百濟)가 웅진(熊津)으로 천도(遷都)하기 이전(以前)에 진행되었음을 추정(推定)하였다. 이후(以後) 공산성(公山城)은 한때는 왕도(王都)의 중심성(中心城)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지리적(地理的) 이점, 요형(要衝)으로서의 기능에 따라 끊임없는 군사적(軍事的) 거점의 역할을 지닌채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곽(城廓)도 백제(百濟)의 시축시(始築時)에는 토성(土城)이었던 것이 조선초기(朝鮮初期)에는 석성(石城)으로의 개축(改築)이 보이고 있으며, 명칭(名稱)도 웅진성(熊津城)에서 공주산성(公州山城), 공산산성(公山山城), 쌍수산성(雙樹山城)의 변천(變遷)을 보이고 있다.

성내(城內)에 남아있는 유적(遺蹟)에서도 이와같은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 유적(現在 遺蹟)의 대부분(大部分)은 조선기(朝鮮期)에 조영(造營)된 것이 다수(多數)를 차지하고 있지만, 발굴조사(發掘調査)된 유적(遺蹟)의 대부분(大部分)이 백제(百濟)에서 조선(朝鮮)에 이르는 유적(遺蹟)이 중층(重層)을 이루고 있음이 발견된다. 만아루지(挽阿樓址)가 조선시대(朝鮮時代)의 건물지(建物址)로 알려지고 있으나 백제대(百濟代)의 건물유지상(建物遺址上)에 중축(重築)의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임류각지(臨流閣址)가 백제시대(百濟時代)의 건물지(建物址)로 발굴조사(發掘調査)되었지만, 임류각지상(臨流閣址上)에는 고려(高麗), 조선(朝鮮)의 유적(遺蹟)이 중층(重層)되어 있음이 조사(調査)되었다.

이와같은 성곽(城廓)이나 성내(城內)에 남아 있는 유적(遺蹟)의 중층구조(重層構造)는 공산성(公山城)의 역사적 위치(歷史的 位置)를 다소나마 대변(代辯)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공산성(公山城)이 백제시대(百濟時代)의 왕도 중심성(王都 中心城)의 지위(地位)를 지녔

다는 요인이외(要因以外)에 공산성(公山城)이 지니는 방어상(防禦上)의 이점(利點)으로 후대(後代)에도 계속 충실하게 그 기능을 수행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最近)까지 공산성내(公山城內)에서 발굴조사(發掘調査)가 진행(進行)된 유적(遺蹟)은 만아루지(挽阿樓址), 임류각지(臨流閣址), 동문지(東門址), 장대지(將臺址) 등(等)의 건물지(建物址)와 성곽(城廓)에 시설(施設)된 암문(暗門), 수구문(水口門) 이외(以外)에 지당(池塘) 등(等)이 있지만, 이들 유적(遺蹟)은 대체로 문헌(文獻)이나 지도상(地圖上)의 표시(表示)를 중심(中心)으로 조사(調査)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充分)한 조사(調査)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 자료(資料)에 의해 공산성(公山城)의 변화(變化), 변천(變遷)의 파악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성내(城內)에 남아있는 미조사(未調査)의 유적(遺蹟) 또한 적지 않으리라 본다. 따라서 공산성내(公山城內)의 유적(遺蹟)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研究)·조사(調査)의 진행(進行)에 따라 공산성(公山城)의 실체구명(實體究明)이 가능해 질 것으로 믿는다.